

# “70년대 빈둥대던 사람들이…”

## 이명박, 또 말 실수 …타후보들 집중 성토

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'빈둥대던 사람들'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.

이 전 시장이 박 전 대표를 겨냥한 '애를 낳아봐야 보육을 얘기할 자격이 있다'는 대전의 말실수에 이어 또 다시 말실수를 하면서, 대선후보 지지도 1위라는 위치 때문에 다른 후보들의 집중공격을 받는 과정에 구축해 온 '신중한 이명박'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.

이 전 시장은 27일 자신의 정책자문 교수모임인 바른정책연구원의 세미나에서 "최근 70,80년대 산업시대를 비

난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 나는 토목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갖고 있다"면서 "요즘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 70, 80년대 빈둥빈둥 놀면서 혜택을 입은 사람들인데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. 남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다"고 말했다.

이 전 시장의 발언은 최근 여당과 한나라당내 대권 경쟁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손학규 전 경기지사 등이 자신의 대표적 공약인 '한반도 대운하'를 비판하고, 전날 손 전 지사가 목포에서 "60~70년대식 개발시대와 구시대 악습으로 가고, 줄세우기를 하고, 금

품이 난무하는 정치로 돌아갔을 때 국민들이 한나라당에게 믿음을 주고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느냐"는 말에 대해 묵혀 온 감정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. 이 전 시장의 말실수에 박 전 대표와 손 전 지사측은 반박성명을 내고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.

박 전 대표측의 한선교 대변인은 "그 시절 산업화세력은 산업화 세력대로, 민주화세력은 민주화세력대로 역할을 다했다고 본다"고 논평했다.

손 전 지사 측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모독이고 21세 지도자로서의 한계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.

한나라당 대선후보로 뛰고 있는 고진화 의원도 "개발독재식 국가경영 패러다임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묻어야 한다"며 공격에 가세했다.

말실수가 뜻밖의 파문을 일으키자 이 전 시장은 이어진 오후 행사에서 민주화세대와 산업화세대가 서로 인정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뜻이었다는 해명을 했다.

하지만 검증론의 여파가 수그러들기도 전에 이 전 시장이 산업화세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실수를 함에 따라 "신중치 못하다"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. 김상섭기자